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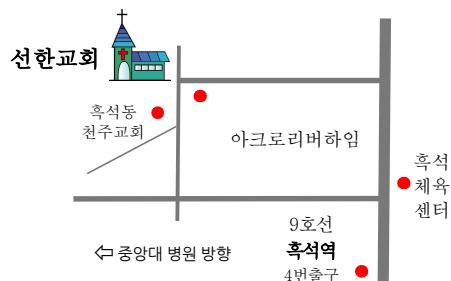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3부(청년)주일오후 1:00	유 아 부	오전 10:00	남전도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초 등 부	오전 10:00	바 울 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청 소 년 부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 임 목 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 사	오 인 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김진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해 외 협 력 선교 사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박 희 태, 유 신 웅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장 로	윤 호 중 (집사장)	관 리 장 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조 윤 익, 박 영 근		이금춘, 김인실
	조 계 승, 이 태 수		조나단, 강야엘
	편 도 선		손 석 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스이용(동작 01, 10, 21)

표 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10:12)
Break up your fallow ground

실 천 사 항 예배회복 말씀/기도회복 선교사의 삶 회복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살전 1:5)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임춘배 담임목사
	3부 오후 1:00 (청년예배)	김진만 목사

1, 2부		3부 (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40장 (통일찬송가 43장)	
교 독 문	교독문 98번 (아버이주일)	
찬 양 과 경 배	199장 (통일찬송가 234장)	
기 도	이 태 수 장로	정예영 청년
특 송	이하은 청년 [어저께나 오늘이나]	
말 씬 봉 독	데살로니가전서 1장 1~5절	삼상 18장 33절
설 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임춘배 목사)	아버지의 사랑 (김진만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정예영 회장
파 송 의 노 래	주의 나라 세우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축 도	임춘배 목사	주기도문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시7:1-17)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502
1. 주 일 예 배

오늘은 아버지, 목회자, 스승주일로 드립니다.
 바울, 에스더, 드보라회를 위해 교회에서
 아버지날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2. 예 배 안 내

1.주일예배: 주일예배는 1,2부로 나누어 대면예배로 드리고
 영상을 제공합니다.
 2.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를 대면예배로 드립니다.
 당분간 금요일기도회 영상 제공합니다.
 3.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읽기(3차)
 (범위:전도서1장 ~ 이사야25장)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4.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
 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
 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
 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5. 떡 제 공

고상돈, 장혜선(원섭)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찬송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통 217)
신앙고백 : 사도신경
본문 : 히브리서 13장 20~21절

말씀 :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수신인도 교회인지 특정 개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복음입니다. 특히 NT고 NT 오늘 본문은 기독교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매우 잘 보여 주는데, 엄숙한 축복을 기원하는 대목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해 인사를 ‘복 많이 받으세요’로 할 만큼 다른 사람에게 자주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비는 인사를 건네는 좋은 성품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복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으로서 한 번쯤은 고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경제뿐 아니라 마음마저 얼어붙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어느 정도 극복했는데 그 무렵 한 카드 회사가 만든 광고가 화제가 됐습니다. 기독교를 연상하게 하는 크리스마스 복장을 입은 여배우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광고였죠. 경제난을 딛고 일어난 우리 사회에서 복 받는 건 곧 부자가 되는 걸 의미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쓴 우리 사회는 2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열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복 받은 것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는 독자들에게 복을 빌면서 ‘선한 일에 온전해질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 ‘예수 안에서 즐거운 것들을 이룰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 ‘관계의 복’과 같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들을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선한 일을 위해 이익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 뜻을 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즐거운 것들이 꼭 내게도 즐거운 일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것들로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신앙과 관련된 여러 작품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인데 일부를 살펴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십자가가 허락된다면//모가지를 드리우고/꽃처럼 피어나는 피를/어두워져가는 하늘 밑에/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십자가는 괴로운 것이었지만 그 길이 예수님을 행복하게 했다는 생각, 자신도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시인의 은유를 통해 기독교인의 복을 새롭게 생각해 봅니다. 하늘 뜻을 받드는 것이 복이라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큰 유산, 그들에게 빌어주어야 할 가장 큰 복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선한 일에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축복을 가정과 교회에서 선포하며 기독교인의 축복을 온당하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제 목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살전1:1-5)	
서 론	바울은 회심한지 얼마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본 론	1. 서론과 인사말	
	(1) 저자 및 기록연대: 사도바울. AD51-52	
	(2) 2차 전도여행중 빌립보에 이어 유럽에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행17장)	
	(3) 기록목적: 회심한지 얼마되지 않은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함	
	(4) 감사의 내용: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3절)	
결 론	(5) ‘복음이 말로만 이른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것임이라’(5절)	
	2. 교훈	
	(1) 신앙의 성숙은 무엇으로 알수 있는가?	
	(2)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가?	
	(3) 복음을 어떤 모습으로 전해야 하는가?	
결 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이태수 장로	편도선 장로

매일 Q.T.		주님 말씀 안에서 충성되고 겸손한 삶	날짜 : 5월 9일
찬양	찬송가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되신		
본문	고린도전서 4:1~8		
말씀요약	바울은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리도 성도들이 교만하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 스스로 왕 노릇 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목상질문 1	그리스도 일꾼의 자세 4:1~5 바울은 복음 사역에 충성하다가 사람들에게 판단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했나요? 나는 사람들의 비판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목상질문 2	교만하지 말라 4:6~8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6절)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 은혜를 입고 교만해진 부분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고린도전서 4장 1~2절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일꾼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페레테스’는 배 아래쪽에서 노 젓는 노예를 말합니다. 이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3년에 불과했을 만큼 배 밑에서 노 젓는 일은 생명을 값아 먹는 중노동이었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 함께 죽는 노예와 자신을 동일시 한 바울에게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치겠다는 결의가 느껴집니다. 복음 사역에 부름받은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온전한 ‘충성’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다른 사람의 시선과 판단에 민감하고, 사람의 지혜로 비난과 자책을 거듭했던 제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맡기신 분의 뜻에 따라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의 하나 됨을 위해 하나님과 형제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청기지의 자세”
찬양과 기도	예수 따라가며 (새 449)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경배와 찬양)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앤드루 카네기(Andrew Cannegie, 1835~1919)는 강철왕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카네기가 늙어서 회사를 후계자에게 넘겨줄 때가 되자 ‘과연 누가 카네기의 후계자가 될까?’라는 질문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카네기의 후계자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가 지명한 후계자는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기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카네기는 쉬브라는 사람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는 잘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고,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카네기의 회사에 청소부로 입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카네기의 후계자로 지목된 이유는 회사를 향한 충성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청소부로 입사한 쉬브는 자신에게 할당된 구역뿐만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열심히 청소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좋게 본 간부들이 그를 정식 사원으로 채용했고, 더 나아가 카네기의 비서직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어 회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충성심과 성실함은 회사의 주인인 카네기를 감동시켰고, 카네기는 아주 작은 일부터 충성한 그에게 큰일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말씀 나누기	고린도전서 4:1~8	
목상포인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과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교만하게 자기 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품성이 무엇이라고 했나요?(1~2절)	
적용하기	청지기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청지기로서 충성과 겸손을 겸비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아버지 같은 사역자	날짜 : 5월 10일
찬양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본문	고린도전서 4:9~21		
말씀요약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온갖 고난을 겪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하며, 디모데를 먼저 보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에게 갈 때 매를 가지고 갈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지 묻습니다.		
묵상질문 1	바울 일행이 받은 고난 4:9~13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은 어느 정도였나요? 내가 주님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기꺼이 감내할 고난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영적 아버지 같은 바울 4:14~21 '복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낳았다'는 바울의 말은 복음 전도자에게 어떤 도전을 주나요? 내가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양육할 지체는 누구인가요?		
한절묵상	고린도전서 4장 15절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스승이라고 불리며, 대가를 받고 복음을 파는 거짓 선생들을 경계합니다. 사람들을 현혹해 이익을 취하던 거짓 선생들에게 분개한 바울은 '거저 받은'(마 10:8) 진리의 말씀을 '값없이'(고후 11:7) 전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복음 진리로 생명을 낳는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말이 귀를 감탄시킨다면, 가슴에서 나온 복음 전도자의 가르침은 영혼을 감동시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비록 사명의 길이 험하고 고난이 많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수치와 모욕 속에서도 완전한 사랑으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십자가를 제 삶에 선명히 새기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또 다른 이에게 본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매일 Q.T.		교회의 거룩함을 위한 단호한 선택	날짜 : 5월 11일
찬양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본문	고린도전서 5:1~13		
말씀요약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의 음행과 그것을 용납한 것에 대해 책망합니다. 음행하는 자를 내쫓아야 하는 것은 그의 영이 주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고, 죄가 누룩처럼 전체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등의 죄를 짓는 사람들은 교회가 판단하고 내쫓아야 합니다.		
묵상질문 1	음행하는 자들을 치리하라 5:1~8 바울이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할 정도로 단호히 처리해야 했던 죄는 무엇인가요? 내가 속한 공동체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어떻게 다루나요?		
묵상질문 2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5:9~13 음행 외에도 바울이 언급한 죄들은 무엇인가요?(11절)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의 죄를 은폐하고 감싸면 어떻게 될까요?		
한절묵상	고린도전서 5장 1~2절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는 지리적 특성과 다산을 기원하는 아르테미스 숭배가 어우러져 성도덕으로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타락에 맞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서로 분열하고 갈등했으며, 너무나 쉽게 세속 문화에 들어갔습니다. 영적 타락 이후에는 반드시 도덕적 타락이 따라 옵니다. 구원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면, 성화의 기초는 '거룩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살전4:3~8)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교회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아닌지요.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 보혈을 호소하신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로 나아갑니다.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는 저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매일 Q.T.		불의한 일을 당해도 관용을 베푸는 성도	날짜 : 5월 12일
찬양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본문	고린도전서 6:1~11		
말씀요약	바울은 성도 간 다툼을 세상 법정에 고발한 일을 책망합니다 .세상을 판단 할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서로 고발하는 것은 잘못이며,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편이 낫습니다. 성도 중에도 불의한 자였다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묵상질문 1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 6:1~6 성도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내 삶과 공동체에서 양보와 타함으로 해결할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불의한 자가 되지 말라 6:7~11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내가 멀리할 죄는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고린도전서 6장 7절 하나님 공의를 내세워 다른 성도를 법정에 세우는 행동은 하나님 공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대신해 자기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는 불신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공동체에 속한 지체의 불의를 세상의 법과 질서로 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 됨을 사랑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불의와 속임을 당하더라도 교회의 하나 됨을 지켜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주님이 생명 바쳐 부여하신 ‘성도’라는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습니다. 자기 이익이나 자존심 때문에 이 귀한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서로 더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매일 Q.T.		성령이 거하시는 몸, 하나님 영광의 통로	날짜 : 5월 13일
찬양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본문	고린도전서 6:12~20		
말씀요약	바울은 우리 몸이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해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에 창녀와 합하면 안됩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값으로 산 성령의 전이므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묵상질문 1	주님을 위한 몸 6:12~14 사람의 몸과 관련해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가 금할 것과 추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몸은 주님의 것 6:15~20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8절) 음란한 세상에서 성도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비루한 몸을 사셨습니다. 이는 더러운 것을 사기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내주는 비합리적 행동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상식과 맞지 않는 이 교환 속에 하나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 대한 그분의 열심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우리 몸과 삶을 거룩한 제물로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죄의 종이었던 저를 건지셔서 완전한 자유를 주신 주님! 주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음란과 쾌락을 부추기는 세상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보배로운 피로 사신 저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온전히 지켜 가게 하소서.		